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음 4월 27일) 제18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난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열린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한국과 아프리카 기니의 개막경기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3만8000여명의 관중들이 흥팀 한국을 응원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 기니를 3-0으로 제압했다.

제3금융도시 실현 '가속도'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 채택에 따라
송 지사,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 노력 주문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 조성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지역 핵심공약으로 채택돼 금융도시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9일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함께 국민연금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인프라 기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맞아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송 지사는 이를 위해 이날 담당부서에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 건설은 송 지사의 선거공약으로 탄소산업 육성, 삼각농정과 함께 도정의 핵심사업이자 도민의 최대 관심사업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는 2012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대전충남본부와 광주전남본부로 흡수 통합됐다.
이 때문에 도내 금융기관들은 화폐수급이나 인센 서비스 등의 거래를 위해 광주·전남본부와 대전·충남본부를 오가야 하는 불편함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
그러나 화폐수급 통합 이후 전북의 금융환경은 확 달라졌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완료했고, 3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해 서부권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그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제3의 금융도시 건설을 위해 그동안 도에서는 157억원을 투입해 금융타운 부지를 매입했으며, 구체적인 방향

설정 위해 기본구상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금융도시로서의 성장은 무엇보다 사회적 금융인프라 구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현재 금융인력 양성과 농업금융연수원 등 금융기관 유치와 더불어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한층 더 긴밀하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폐수급 통합 이후, 지난해 6월에는 강원과 인천본부가 복원된 사례가 있어 화폐수급재개를 위한 도민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해 시장·군수협의회 등에서 화폐업무 재개를 위해 성명서를 낸 바 있고 송 지사는 한은 총재를 직접 방문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통한 전북금융산업 육성이 도민 열망"이라며, "여당의 선거공약에도 반영된 만큼 한국은행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막... 23일간의 열전 돌입 미래의 호날두·메시 등 스타들, 전주에 모였다

한국, 이승우 등 골로 기니에 3:0으로 이겨 4강 신화 재현 행보 시동
개막전 앞서 잉글랜드-아르헨티나의 '빅 매치' 로 전주성 '들셀'



세계 축구 역사를 다시 쓸 미래축구 스타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 지난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했다.
이번 FIFA U-20 월드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기니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23일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개막전이 열린 전주월드컵경기장은 3만 8천여 석에 이르는 좌석이 모두 매진되는 등 전주의 축구 열기를 재확인시키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개막전에 앞서 진행된 개막식 행사에서는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정몽규 위원장을 비롯, 유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광영진 상근 부위원장, 차범근 부위원장, 파티마 FIFA 사무총장, 1983년 멕시코청소년월드컵 대회에서 4강 신화의 기적을 이뤄

냈던 박종환 감독 등이 참석해 전주 개막을 축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축구도시 전주를 방문한 국내외 인사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개막식은 대회 슬로건인 '열정을 키워라'를 주제로 300여 명의 인원이 참가, 전주와 어울리는 가장 한국적인 멋의 취타대 연주와 이번 대회 24개 참가국의 국기 입장 등이 진행됐으며, 축구공과 태극문양을 활용한 그라운드 연출과 드론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역동감을 더했다.
또한, 대회 조직위 홍보대사인 가수 NCT DREAM이 오피셜 송 'Trigger the Fever' 축하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이번 대회 공식 개막전인 아프리카 기니와 대한민국 팀의 경기에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가득 메운 응원단과 관람객들의 열광

적인 응원전이 펼쳐졌으며,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붉은악마 응원단과 전통 문화도시 전주의 색깔을 입은 한복응원단이 한데 어우러져 개막 경기의 정관을 연출했다.
이 같은 일반적인 응원과 함께, 이승우, 임민혁, 백승호의 골로 한국이 기니를 3대 0으로 누르고 4강 신화 재현을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개막전에 앞서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세계적인 축구 라이벌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빅 매치가 열려 경기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를 3대 0으로 이기고 본선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11일까지 전주를 비롯한 수원, 인천, 천안, 대전, 제주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김민근 기자

바쁘고 지친 일상은 잠시 뒤로하고
별빛이 수놓인 밤하늘을 스크린 삼아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6.2. - 6.6.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mjff Muju Film Festival 2017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Festival Friend 류현경